

전남 중부권



봄 유채꽃

영화 '천년학' 촬영지

임권택 영화감독의 100번째 작품 '천년학'의 배경인 장흥군 회진면 '선화동' 마을이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경관(볼거리)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봄에는 유채꽃, 한여름에는 시원한 바다 풍경, 가을에는 메밀 등 환상적인 경관코스도 뜨고 있다. 장흥읍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독립만 연안에 자리한 이 마을은 40여 가구 100여명이 살고 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작산이 고깔처럼 뾰족하게 하늘로 치솟아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범승의 머리를 방불케 하고, 관음봉 좌우로 길게 펼쳐 있는 산줄기는 실제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은 이 고장출신 소설가 고 이청준(1939~

4 계절이 북적북적

장흥에 선화동마을

2008) 작가가 이 마을을 배경으로 쓴 소설 '선화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마을 입구 동편에는 '천년학' 세트장(주막)이 남아 있다. 이 마을에서 관심을 끄는 곳은 이청준 소설가가 쓴 소설 '선화동 나그네' 전체를 옮겨 적은 100개의 나무(목판)판자이다. 2km에 이르는 마을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선화동 마을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5만여평에 달하는 다락밭과 10만여평에 이르는 논, 드넓은 바다가 조화를 이룬다. 한편 지난해 마을 주민과 출향 인사들은 장흥군에 건의해 조례 개정을 통해 '산저리' 행정구역 마을에서 '선화동' 마을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최기홍(56) 이장이 인터넷에 '선화동 마을' 카페를 개설해 날로 전국 관광지 명소로 뜨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가을 메밀꽃

강진 고려청자 요지 발굴조사

郡 "초기 가마터 형태·구조 단초 발견 기대"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63호와 사당리 43호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발굴조사가 본격화 됐다. 강진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27일 사당리 43호 청자요지 일원에서 개토제를 지낸후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굴은 지난 1981년

용운리 10호 발굴조사에 이은 30여 년만의 발굴조사로 본격적인 학술조사로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994년 세계문화유산 원에서 개토제를 지낸후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굴은 지난 1981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용운리 63호 청자요지는 현재 확인된 강진 고려청자 요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운영된 가마로 알려졌다. 강진군은 이곳 지표조사에서 10세기 해부리급 청자편이 발견된 점, 짜리나무로 가마를 덮은 흔적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초기 청자가마의 형태와 구조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당리 43호 청자요지는 최전성기의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다른 지역의 청자가마와 달리 북향이며 급격한 경사 구조로 독특하다. 또 지형이 잘 남아 있고 퇴적층의 보존 상태도 양호해 그동안 완전한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던 고려청자 가마의 형태와 성격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청자축제 기간(7월 28일~8월 5일)에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해 문화자원과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장성군 2200억원 투자유치

민선 5기 68개 기업과 협약 2030명 고용창출

민선 5기 들어 장성군이 활발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민선 5기 투자유치 중간점검 결과 지난 27일 협약을 체결한 (주)씨아이에스를 포함한 6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액만 2221억원으로 203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이는 민선 5기 전남도의 2000개 기업유치와 관련해 112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 대비 60%를 달성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업종이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산업 관련 업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나노 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나노 관련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투자협약 성과는 호남·서해안 고속도로와 KTX 열차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광주 하남공단과 평동산단이 인접하는 등 기업유치의 최적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공장 인·허가의 원스톱 민원 처리는 물론 기업의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 민원서비스를 제공, 기업유치에 기여했다. 군은 앞으로 ▲나노 기술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속개 ▲레이저 산업지원센터 건립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 본격화 ▲광주 연구개발특구 등이 호재로 작용해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도 902억원 을 들여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장성을 유턴길 일원 부지 9만9000㎡에 연면적 4만7000㎡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이후 고용확대와 지방재 수입 등 연 26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을 장성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비파 신품종 '진왕' 완도·진도 보급

전남농기원 실증재배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완도와 진도에서 비파 신품종 '진왕'의 농가 실증 재배를 추진한다. '진왕'은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09년 육성한 품종으로 2010년 국립 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했다. 수확기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인 건립 본격화 ▲광주 연구개발특구 등이 호재로 작용해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도 902억원 을 들여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장성을 유턴길 일원 부지 9만9000㎡에 연면적 4만7000㎡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이후 고용확대와 지방재 수입 등 연 26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을 장성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농가 실증 재배를 통해 '진왕'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상 문제를 해결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산지 위주로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비파 '미황'품종을 완도·장흥 지역 등에 27ha를 보급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장흥 토요시장 30일 7주년 행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문을 연지 7주년을 맞았다. 장흥군은 30일 오전 11시 정남진 시장 토요시장 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개장 7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사물놀이, 난타공연 등 사전행사와 초대가수, 각설이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북

韓·日 고대 저수지 세계유산으로

김제-사이마시 공동등재 추진

김제시와 일본 오사카 사이마시가 '벽골제'와 '사이마이케'(巽山池)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견식 김제시장과 일본 요시다 도모요시 사이마시장은 지난 27일 양국 고대 저수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등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계획 논의와 함께 문화관광, 경제교육, 농업 등 전반적

인 상호 우호교류 협력에 들어갔다. 양 저수지는 고대 세계적인 저수지의 효시로 손꼽힌다.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서기 330년에, 사이마이케는 616년 무렵에 각각 축조됐으며, 부업 공법과 용도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한·일 저수지는 양국이 동일한 고대 토목공법을 이용한 치수와 수리관개에 관한 역사적 중요한 유적"이라며 "양 시가 추진하게 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KTX 정읍역사 공사 재개

6개월 논란 종식...지하차도는 원안대로

권익위 조정·중재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가 당초 계획대로 건립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명란)는 28일 정읍에서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관계자,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결과 정읍역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맞춰 철도설계 기준에 맞는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하고, 현재의 정읍역사는 철거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역과 연결되는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통과높이 4.5m로 개설하도록 합의안을 이뤘었다. 아울러 정읍시에 토취장 개발 등 인·허가를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권익위 중재에 따라 올해 초부터 6개월여 간 이어진 논란을 종식하고 정상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KTX 정읍역사와 지하차도를 신축하기로 확정했다가 지난 1월 예산절감과 예상 이용객 저조, 사업기간 단축 등이 이유로 '현 역사를 활용하고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선회, 정읍시·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정읍시 129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3월 '서해안

7개 시·군의 교통 중심지로 2014년 KTX 개통 후 집중될 관광객 편의와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새 역사와 지하차도 개설이 필요하다'며 정읍시민 7만3188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공사가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정읍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정읍역사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관광 남원 입지 굳혔다"

이환주 남원시장 상반기 시정결산 간담회

이환주 남원시장은 28일 상반기 시정결산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에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도약, 귀농 귀촌 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및 투자유치기반강화, 녹색 생태도시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재별·계절별 관광코스 개발과 유치전략으로 초·중·고 수학여행단 6만1287명을 유치해 수학여행 1번지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상반기에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도시도약, 귀농 귀촌 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및 투자유치기반강화, 녹색 생태도시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재·계절별 관광코스 개발과 유치전략으로 초·중·고 수학여행단 6만1287명을 유치해 수학여행 1번지로 입지를 구축했다. 지리산둘레길 완전개통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전략이 주효해 관광속

박시설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72% 증가, 도내 1위 성과를 거뒀다. 춘향제, 바래봉 눈꽃축제, 철쭉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사계절 관광도시 위상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엠피온스, 픽슨의 공장 준공과 드라곤레이크 CC·상록 CC 개장, 대형마트 영업 제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준공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베이비붐 세대와 재외향우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131가구 294명을 유치했다. 시민건강 증진·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학교동 공동묘지를 이전, 광치천 생태복원사업비로 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시장은 "하반기에 지리산탐험 건설공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회·사회단체 등과 역량을 결집해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저보다 더 예쁜 동물 본적 있나요" 순창 감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청공작을 감상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단신

전주 노인 취업지원센터 재취업 교육

전주시 노인 취업지원센터는 최근 지역 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제4기 재취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원·경비원·서비스원 및 택시운전 자격증 등 노인들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을 교육했으며, 조기취업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관계자를 초빙해 실

무교육을 했다. 김대창 센터장은 "22일 현재 139명을 취업알선하는 등 올해 300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이것이 판소리다!' 관광자원화 선정

제20회 남원 흥부제 특별 기념 공연인 '이것이 판소리다!'가 (재)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 주관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것이 판소리다!'는 국악과 농악행사가 펼쳐지고, 광한루원

의 야간경관을 배경으로 판소리를 극화해 관광 상품화로 연계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10월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오작고 수중무대에서 야간 공연으로 '이것이 판소리다!'를 관광 상품화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정읍시, 붕어·메기·다슬기 수산종묘 방류

정읍시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붕어·메기 15만마와 다슬기 40만마 등 내수면 수산종묘를 방류한다. 방류장소는 동진천과 고부천, 매곡천 3개 하천 6개소와 웅산 저수지이다. 시는 지난해 관내 2개 하천 5

개소와 3개 저수지에 붕어 등 6개 어종 치어 106만7000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김생기 시장은 "수산자원 증가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부안농기센터, 귀농·귀촌인 정착 교육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귀농·귀촌하는 신규 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2회(화·수요일)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

이다. 귀농에 성공한 선배 귀농인들의 사례발표 및 선진농장의 현장교육 등 향후 영농정착에 큰 도움이 되도록 단발성 교육이 아닌 현장맞춤형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